

ETH Zürich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 교환학생 활동보고서

전기·정보공학부 최석원

2023년 봄학기 ETH Zürich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최석원입니다. 출국하기 이전에 읽은 귀국보고서들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기에, 저 또한 이후에 다녀오는 교환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겹치지 않는 내용을 많이 포함시켜 후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지원동기

전부터 타지에서 생활해보고 싶었던 저는 공과대학 주관 Global Leadership Program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주변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들이 대체로 추천을 하기도 하였고, 제 스스로에게도 미래에 해외에서 연구를 하고 싶을지에 대해 미리 경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중에서도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ETH Zürich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는 세계적으로도 연구의 실적을 인정받는 학교이기에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학생들과 교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가 비록 생활비가 비싸기로 알려진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치안이 좋기도 하며,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기에 교환학생 생활을 하기 좋은 나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영어권 국가는 아니지만, 취리히 같은 도시에서는 영어가 대부분 통한다는 것도 중요한 이점이었습니다. 또한 서부유럽과 중부유럽의 중앙에 있어 방학 때에 주변 국가로 여행을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것도 이점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하여 취리히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결과, 일말의 후회도 없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I. 학업

우선 저는 의도와는 다르게 ETH의 전기·정보공학부인 D-ITET (Electr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가 아닌 컴퓨터공학부 D-INFK (Computer Science)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전기·정보공학부가 컴퓨터 분야의 연구 및 교육도 행해지고 있어서, 이 분야에

집중하고 싶으면 전공을 Computer Science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도 Computer Science 교환학생이 많아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용이하였고, D-INFK에서는 따로 Welcome Event도 열어주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ETH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총 학점(ECTS Credits)의 2/3 이상을 해당 전공에서 들어야 하는 제도인 “2/3 rule”이 있는데, D-INFK의 경우 특별하게 1/2 이상만 Computer Science 강의를 수강해야 하고, 2/3 이상은 Mathematics, Physics, Electrical Engineering으로 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가로 D-ITET에서 제공되는 전기공학 강의를 Computer Science 과정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제 학업계획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석사 수업의 경우, 두 전공 과정에 모두 포함되는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래 서술할 Semester Project를 하였다면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ETH는 학부생 과정이 기본 6학기이어서, 석사 1학년 수업이 서울대학교 4학년 수업과 난이도가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원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Pass하기가 더 쉽다고 하기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여도 좋습니다.

1. 수강신청

ETH는 ECTS Credits가 학점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일주일에 2시간 Lecture와 2시간 Exercise가 있는 전공 강의가 6 credits, 일주일에 2시간 Lecture만 있는 강의가 3 credits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환학생은 20 credits 이상을 수강해야 하고, 30 credits 이하가 권장됩니다. 위에 명시한 대로 총 credits의 2/3 이상은 본인 전공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Department나 Language 등 필요한 검색을 설정하여 수강편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orlesungen.ethz.ch/Vorlesungsverzeichnis/sucheLehrangebotPre.view?lang=en>

많은 ETH의 강의는 수강인원제한이 없습니다. 대형 강의실이 많은 ETH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강 후 2주간의 수강변경기간까지 Credits의 제한 없이 수강신청을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강의를 있다면 일단 신청을 한 다음에 직접 강의를 들어 보고 취소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체로 출석이 자율이고, 녹화 강의를 제공하는 과목이 많기에 수업시간이 겹치는 두 과목의 수강신청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강의들은 수강인원제한이 있습니다. 대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고, 대기열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 중 Soccer Analytics는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목 특성상 32명 수강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개강 직전에 신청하여 대기번호가 100번이 넘었지만 수강변경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취소하여 다행히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원이 수강 제한을 넘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대기열을 걸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과목들은 특정 전공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선착순이 아닌 방식으로 수강인원을 선별하기도 합니다. 예로 “Introduction to Mechatronics and Robotics”는 개강 2주반 전까지 750자의 Motivation Letter를 작성했어야 하는데, 이 강의를 수강하고 싶었으나 늦게 알게 되어 수강할 수 없었습니다.

2. Semester Project

다른 후기들에 관련 내용이 많아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Semester Project를 수강하고 싶었지만, 어떤 주제로 연구하고 싶은 지를 고민하던 중에 여쭙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혹여나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교환학생이 확정되자마자 각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Semester Project (혹은 Thesis) 목록을 읽어본 후 빠르게 해당 연구실에 연락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출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ECTS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시험 및 평점 시스템

참여형 수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출석이 자율이고, 따라서 학점이 시험 혹은 프로젝트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제도 자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과목은 랜덤으로 선택된 과제들을 일정 비율 이상 마무리하였으면 추가 grade 0.25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평점(grade)은 0.25점 단위로 6점 만점이며, 4점 이상이면 Pass인 시스템입니다. 대체로 석사 과정 강의들이 Pass가 더 쉽다고 합니다. Grading 방식은

- ① Semester performance: 학기 내에 기말고사를 보거나 과제, 프로젝트 등을 종합하여 산출
- ② End-of-semester examination: 종강 전후 기간 동안 치르는 시험으로 산출
- ③ Session examination: 방학이 끝난 후의 기간 동안 치르는 시험으로 산출

까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각 시험 기간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봄학기의 경우, 5월 후반쯤 각 과목의 시험 날짜가 확정됩니다.

<https://ethz.ch/staffnet/en/news-and-events/academic-calendar.html>

제가 수강한 전공 수업은 모두 session examination 방식을 가지고 있어, 6월초에 강의가 종강하였지만 8월에 시험이 있어 이때까지 취리히에 남아있었습니다. (혹여나 6~7월에 귀국을 해야 한다면 session examination으로 평가하지 않는 과목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업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을 당기게 해줍니다. 인정 사유로는 학기와 겹침 (혹은 개강 전 일주일 이내), 졸업 논문 연구, 필수 인턴십 등이 있습니다. 저도 한 과목의 시험 날짜가 다음 학기 개강 직전이었으나, 다행히 학부 행정실 선생님께서 시험 감독을 봐주신다고 하셔서 큰 문제없이 비대면 시험 신청 처리가 되었습니다. Distance exam 및 Preponement 관련 자세한 내용은 ETH에서 학기 도중에 설명회를 열어줍니다.

Examination은 모두가 익숙한 Written examination과, ETH만의 특별한 Oral examination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Oral examination은 보통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조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1대1 면접과 같은 느낌으로 교수님의 물음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술로 시험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긴장되었으나, 저의 경우 교수님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해주셨고,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는 힌트도 주셨습니다. 저의 경우 필요한 공식은 주어진 연습장에 작성하여 보여드렸는데, 칠판을 사용할 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술 시험의 목적은 수업을 잘 들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익히고, 중요한 공식 혹은 그래프를 알고 간다면 좋은 평점이 나올 것입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이전 구술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소위 말하는 족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miv.ethz.ch/en/studies/documents>

참고로 Preponement를 신청한 과목은 반드시 Oral examination으로 시험 보게 되고, 또 본래 Oral examination인 시험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가 쉽습니다. (2023년 기준)

4. 수강 취소

개강 후 2주간의 수강변경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수강신청 목록을 변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후로는 시험을 신청/취소하는 것에 따라 수강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ession exam으로 평가하는 과목은 Session examination 기간 일주일 전까지 시험을 취소하면 수업을 수강하였음에도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5. 수강 과목 [ECTS Credits]

자세한 내용은 Course Catalogue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Basic German 1; A1: Intensive Course [2]

개강 전 2주간 매일 초급 독일어를 배우는 강좌입니다. UZH Language Center에서 진행하여, ETH와 UZH 학생이 섞여 수업을 받습니다. A1 수준의 전반부를 배웁니다.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을 만나기 매우 용이하고, 교수님에 따라 취리히 구경을 시켜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 Basic German 2; A1 [2]

개강 전에 수강한 집중 독일어 수업이 인상깊어, 학기 중에도 UZH Language Center에서 진행하는 초급 독일어 강좌를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언어 강의는 모두 수강료를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매일 배우는 Intensive course가 아니다 보니 매주 스스로 복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시험이 예상보다 어려웠지만 독일어를 배우면서 생활 도중에 접하는 독일어 문구도 많이 읽혀서 재미있었습니다.

- Optics and Photonics [6]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전자기학(구 전자장2)과 수업 내용이 일부 겹치지만, Optical approach에 더 집중하고, 마지막 장으로 Laser까지 다룹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구술 시험을 준비하면서 광학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혔습니다. 마지막 수업에는 랩 투어도 시켜 주셔서 광학 관련 연구 주제를 새롭게 많이 접했습니다.

- Design and Control of Electric Machines [6]

전기에너지변환을 선수강하고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필요한 자료가 배부되기에 필수는 아닙니다. DC machine,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machine의 원리를 바탕으로 variable speed motor system을 설계할 때 (산업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들과 제어 원리를 배웁니다. 기본적인 제어이론이 쓰이나 수업을 들으면서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 Soccer Analytics [3]

이번이 역대 두 번째로 진행된 강의였는데, 5명씩 64개의 조를 구성하여 한 조당 2022 카타르 월드컵의 한 경기를 배정받아 자율적으로 통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강의였습니다. 매 수업마다 축구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을 배웁니다. Python에 익숙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됩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유럽대항전 경기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같이 관람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교수님께서 축구 통계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셔, 수업 이후 세비야 FC 등 명문 축구 클럽에서 반년간 데이터분석 관련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스포츠 통계학이 관심이 있으면 적극 추천합니다.

-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s: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3]

Data Analysis를 기반으로 Social network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R을 이용하여 실습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수업을 진행하며 필요한 함수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위 두 강좌는 "Science in Perspective" 카테고리에 포함된 수업인데, 이 카테고리의 강좌들이 대개 공학을 응용하는 교양 수업이 많아 즐겨 수강하였습니다.

- Projekte & Seminare: Quad-Rotors: Control and Estimation [2]

P&S(Projekte & Seminare) 수업은 D-ITET에서 제공하는 연구실 참여형 수업입니다.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실험 기구 혹은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면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제가 수강한 강좌는 쿼드콥터 제어에 대한 원리를 배운 후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2인 1조로 실험실에서 C언어 프로그래밍 기반 ROS로 직접 쿼드콥터를 제어하고 조별로 창의적인 동작을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 4시간으로 진행하였고, 학기 중반부에 종강하였습니다. 저는 D-ITET 소속이 아니어서 자리가 남는 강좌에 신청하였으나, D-ITET 소속 교환학생이면 홈페이지에서 선호 순위를 작성한 것에 따라 강좌에 배정됩니다. 부담 없이 연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추천합니다.

II. 생활환경

1. 주거 생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스위스에 거주하면 학생용 공동 주택 기구인 WOKO에서 방 배정을 보장해줍니다. 그 중 저는 많은 교환학생 후기들에 있는 Sonneggstrasse 27에 배정이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제가 잘 생활할 수 있는 곳에 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큰 공용공간이 없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약간 어렵지만, 같은 층을 쓰는 4명이 한 주방을 공유하니 각자의 음식을 보관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요리하는 환경이 더 편합니다. 특히 외식 물가가 비싼 스위스이기에 밥을 해먹을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대신 정해진 주방 청소 당번이 없어, 룸메이트들과 잘 합의를 봐야합니다. 학교와 가까워서 교통 패스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고, 중앙역 및 시내와도 가까워서 생활이 편했습니다.

스위스의 주거 환경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여름은 한국보다 기온이 높지만 덜 습하

여 체감 온도는 낮고, 대신 햇볕이 더 강합니다. 올해는 비가 자주 왔기에 우산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방에 난방용 라디에이터는 있지만 냉방 기구가 따로 없으며, 대체로 방충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피제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2. 교통

매년 교통 패스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환학생 후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도착 후 SBB(스위스 연방 철도) 창구에 들러 Half-fare card를 사야 합니다. 이때 증명사진을 내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교통카드가 집으로 배송되는데, 이를 통해 비싼 스위스 기차 및 트램을 최대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Seven25는 올해 여름부터 Night GA Travelcard로 개편되었으며, 매달 39프랑이 아닌 연간 99프랑으로 크게 할인되었기에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에 최대 4인의 그룹이 80프랑에 1일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Friends Day Pass, 친구가 스위스 전역 교통권인 GA Travelcard가 있을 때 20프랑에 1일간 같이 다닐 수 있는 Tandem Day Pass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 스위스 내에서 이동할 때에 최적의 옵션을 따져보면 됩니다.

취리히 내에서는 대체로 Zone pass를 사서 트램 혹은 버스로 이동하게 되며, 1시간권, 24시간권, 혹은 1달권을 구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110 Zone 안에 주요 시설 및 학교, 관광지가 대체로 모여 있으며, 공항 혹은 거주지는 인접한 Zone에 있을 수 있습니다.

3. 은행 / 계좌

아무 은행이나 가서서 교환학생인데 학생용 계좌를 열고 싶다고 하면 친절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은행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데, 저는 집 근처에 창구가 있는 ZKB 계좌를 열어서 주말 및 공휴일 전날 저녁에 취리히 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에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이 TWINT라는 송금 어플이 있습니다. 스위스 계좌가 있다면 전화번호를 통해 쉽게 스위스 프랑 송금이 가능하며, TWINT를 통해 카드 대신 결제도 가능합니다.

4. 통신

저는 Swype 통신사를 이용하였는데,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도 쉬웠고, 매달 20프랑을 통해 무제한 인터넷 및 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위스 밖으로 유럽 여행을 갈 시 24시간 당 3프랑의 추가 비용을 통해 해외에서도 무제한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하였습니다.

5. 건강보험

ETH에서 개강 직후 Information Event를 열어주기에 사전조사나 큰 걱정 없이 오셔도 됩니다. 스위스는 필수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보험사들에서 학생들을 위한 옵션을 다양하게 마련해줍니다. 다른 나라의 여행자 보험 등은 보통 필수 보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스위스 보험에는 보통 deductible이 존재하여, 병원에 갔을 시 연간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가격이 낮은 보험은 deductible이 높습니다.

6. 식료품

외식 물가가 비싼 스위스이기에 장을 보고 밥을 해먹을 일이 많을 것입니다. Coop, Migros는 없는 물품이 거의 없으나 조금 더 비싼 마트이고, Aldi, Lidl, Denner는 물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가격이 더 싸입니다. (Coop Prix Garantie나 Migros Budget 제품들은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고기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비싸지만 유제품이나 과일 등은 우리나라보다 값이 쌀 때도 많습니다.

많은 후기들에 나와 있듯이 한식 식료품은 중앙역 근처 유미하나에서 사면되지만, 대체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저는 한국 쌀 혹은 할인 상품 위주로 구매하였습니다. 가끔 취리히 중앙역 지하에 위치한 Asia store에서 더 싼 가격의 아시아 식료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7. 캠퍼스 (학생식당 및 도서관 등)

ETH Zürich의 메인 건물인 Zentrum (혹은 HG)은 시내와 가까우며, 중앙역 근처에서 푸니쿨라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취리히 대학교인 UZH의 Zentrum이 붙어 있습니다. 두 학교 사이에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에 UZH 교환학생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 이점 중 하나는 ETH 학생증으로도 UZH 학내식당을 할인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가격은 대체로 7프랑 내외 (특식은 10~12프랑 내외)입니다. 퀄리티가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메뉴에 따라 맛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Zentrum 주변으로 각 과 건물 및 UZH의 과별 건물, 여러 학생식당, ASVZ 체육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CAB 건물은 학생회관 느낌인데, VIS Lounge에서는 하루에 한 병의 맥주 또는 한 잔의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Student Project House는 해동아이디어팩토리와 비슷한 건물로,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하거나 3D 프린터 이용, 자습 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지만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또한 셔틀버스로 20분 거리에 신식 캠퍼스인 Höggerberg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건축, 토목, 환경공학, 생명공학, 화학, 물리학과 등의 건물이 있어 이 수업들은 Höggerberg 캠퍼스에서 이루어집니다.

ETH와 UZH 모두 건물 내 도서관이 다양하게 위치해 있는데, 그 예로 UZH 법대 도서관은 정말 멋지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UZH 미술사 도서관이 정말 조용하고 책상 옆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좋아서 가장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ETH도 HG 등 다양한 건물 내에 도서관이 존재하는데, 시험기간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정관 2층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부 공간이 있는 CHN 건물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학생증을 통해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8. ASVZ

ETH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스포츠 센터입니다. 캠퍼스 마다 체육관이 존재하여 헬스장은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세션은 사전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Polyterrasse (ETH Zentrum 바로 옆)에서 열리는 농구 픽업 게임에 매주 참여하여 다양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 외에 농구, 킥복싱, 테니스 등의 레슨도 들었는데, 독일어로 진행한다고 되어있지만 독일어를 잘 못한다고 하면 영어로도 설명해줄 때가 많습니다. 올해 전기공학부 건물 옆으로 Gloriabank 지점이 새롭게 오픈하였는데, 헬스장 시설은 제일 좋습니다.

또한 저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ASVZ Forchlauf 행사에 참여하여 트레일런을 즐겼습니다. 제 친구는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SOLA Relay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9. Opernhaus Zürich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는 취리히 시내에 위치해 있는데, 스위스 학생들은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공연을 크게 할인받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줄을 서서 공연 90분 전부터 판매하는 Last-minute ticket은 좌석 불문 20프랑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고 270프랑의 오페라도 미리 줄을 서면 20프랑에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뿐만 아니라 발레, 뮤지컬, 필하모닉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루체른의 KKL Luzern 공연장에서도 클래식 공연을 20프랑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귀국 직전 Lucerne Festival Orchestra의 공연을 크게 할인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10. 그 외의 스위스 생활 팁

- 스위스, 특히 취리히에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급수대가 정말 많습니다. 스위스 여행 중에도 물통을 상시로 챙겨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급수대의 위치는 야외 활동 어플 Strava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 학기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ETH에서는 학기 중간에 각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과 그 나라로 출국할 교환학생을 연결시켜주는 "Get-ready-to-Go!"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때 다음 혹은 다다음 학기에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오는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담으로 카이스트에서 온 다른 한국인 교환학생도 이 행사를 계기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Ricardo는 우리나라의 중고나라/당근마켓과 비슷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물품뿐만 아니라 교통패스나 콘서트, 영화 티켓 등도 거래됩니다.

- 스위스에는 다양한 페스티벌이 열리니, 날짜를 미리 확인하고 즐기면 좋습니다. 저는 운 좋게 취리히에서 3년에 한 번 열리는 큰 페스티벌인 Züri Fäscht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리스탈 불 축제,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루체른 페스티벌, 그뤼예르 치즈 페스티벌, 국경일 기념 라인폭포 불꽃놀이 등 행사 참여 차 다양한 도시를 여행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Snow25는 2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지정된 스키 리조트에 한하여 집에서 스키 리조트까지의 왕복 교통권 + 오후 스키패스를 리조트 크기에 따라 25/35/45프랑으로 제공하는 SBB의 프로모션입니다. 알프스에서 스키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혹시 스키 탈 계획이 있다면 고글 및 스키장갑이라도 챙겨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봄학기에는 부활절 이후 일주일간 짧은 방학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전후로 유럽 내 항공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행 생각이 있다면 미리 계획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 여름에 호숫가에서 수영하거나 계곡 느낌의 Limmat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돛자리나 큰 수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취리히 중앙역에서는 파리, 뮌헨,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직행), 밀라노 등 주변국의 주요 도시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직행 기차편이 있습니다. 스위스를 통과하는 기차인 만큼 가격이 비싸며, 미리 살수록 가격이 싸입니다. 많은 교환학생들은 EURail 기차 패스를 사용합니다. 이외에 Flixbus 등 버스를 통해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III. 교환학생 후기

처음 취리히에 도착했을 때는 막연하게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생활 기간이 늘어날수록 저만의 목적을 찾고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없더라도, 또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혼자서 타지 생활을 해보는 것이 평생 남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례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ETH의 Semester project를 경험해보고 싶었으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 대신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며 제 흥미 분야를 넓힐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인 ETH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나 조별 과제 등을 진행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랩 투어 및 소규모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어 목표했던 바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저는 여행에 큰 의미를 두고 출국하지 않았으나, 친구들의 설득으로 스위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다니며 잊지 못할 경험을 쌓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취리히로 온 교환학생이 저 혼자이고, ETH Zürich의 한국인 교환학생이 둘 뿐이어서 초반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외국인과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모두 키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생활 전반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생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를 넘어서는 다채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본 모든 교환학생들은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교환 학기를 즐기거나 새롭게 배우곤 했는데, 앞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분들도 소중한 경험을 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공과대학 국제협력실과 공과대학 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